

지역 소식 통

정읍시, 가축재해보험
부담금 지원... 최대 75%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4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홍수해, 폭염 설해 등), 화재, 가축질병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시 손해액의 60~100%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을 포함해 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꿀벌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 농업인과 관련 법인이다. 다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에 해당 축종을 등록한 농가여야 한다.

보험료는 농가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비 50%, 지방비(도비·시비 포함) 25%가 지원되며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단, 보험료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비에 한해 총 보험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겨울철 화재 대비
자가 점검 철저 당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겨울철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전선의 합선 또는 단란에 의한 발화, 누전에 의한 발화, 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며 특히 건조한 겨울 날씨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으로는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 뽑아두기, 안전인중(K마크) 제품 사용하기, 난방·전열기기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기,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하고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개폐기(두꺼비집)는 습기나 먼지가 없는 위치에 부착하기 등이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촌중심지 · 기초생활거점 활성화'

부안군, 308억원 투입...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기대

부안군은 지난해 농림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농촌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308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비 214억원을 포함한 예산이

편성돼 농촌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는 4개면(줄포·계화·백산·상서면)을 중심으로 한 생활 SOC(사회적 기반시설) 시설 확충과 문화 및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히 인프라 확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개선을 목표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오는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본계획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정 짓고 6월 최종 고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전반기 부안 으뜸 정책 톱10 선정

온라인 · 오프라인 설문조사... 총 793명 군민 참여

부안군은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온라인(국민생각함)과 오프라인(읍·면사무소)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전반기 부안 으뜸 정책 톱10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793명의 군민이 참여했으며 2024년 4분기 부안군 소식지를 통해 배포된 주요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10대 분야 24개 정책에 대해 1인당 5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및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급 달성 등 '소통으로 더하는 자율·친절·적극행정'이 1위(381표), 2025년도 농업재해보험 본인부담률 0%로 자연재해보상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보장하는 '농업재해보험 농가부담 제로화'가 2위(284표), 2023년 3365명·2024년 3920명·2025년 5015명 등 '노인일자비 확대 및 사회활동 지원'이 3위(282표)를 차지했다.

또 4위 '부안형 푸드플랜 확산', 5위

'전국 최초 대학교 방값등록금 실현', 6위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 7위 '어르신 건강증진 의료비 지원', 8위 '부안 도심 재정비 및 활성화', 9위 '수소산업 퍼스트 무버', 10위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이 10대 으뜸 정책으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정책을 되돌아보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향후 군정 방향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미래 발전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영식 고창군부군수, 농기센터 방문 현장 점검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가 지난 5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주요 시설물을 둘러보고 농업분야 현안사업을 점검했다.

김영식 부군수는 성송면 스마트팜 단지를 방문하고, 고수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내 농산물 안전분석실, 조직배양관, 토양검정실, 미생물배양장, 복분자 양액재배 시설, 고구마 자연광 순화 하우스 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았다.

김영식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시설 현황과 추진업무에 관한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농업 현안과 발전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대실에 따른 농작물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 점검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청년 인규유입과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해 성송면



에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고 있다.

또 실증시험포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목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토양검정실에서는 농작물 재배에 대한 토양검정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는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468성분을 무

료로 분석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등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작년에 유용미생물을 450톤에서 900톤으로 확대 공급, 올해 4월말부터는 읍·면으로 배송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실질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객 만족도 94.3점 기록

정읍체력인증센터, 전국 4위 · 전북 1위 쾌거

정읍체력인증센터가 2024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4위, 전북 1위, 광주·전라권역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력인증센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설문문을 통해 진행했으며 운영 인력, 업무 처리, 체력증진교실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정읍체력인증센터는 94.3점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인 90.6점을 크게 웃도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운영 인력의 전문성과 체력증진교실 운영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체계적이고 친절할 서비스 제공이 시민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린 결과로 분석된다.

정읍체력인증센터는 만 11세 이상



시민이되면 누구나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학교의 학생건강체력평가(KAPS), 노인복지관, 체육 체력 측정 등 다양한 출장 체력 측정 서비스를 통해 폭넓은 계층에 스포츠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화수 시장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선정

고창군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군민행복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도(2023년) 평가결과에서 2단계나 끌어올린 것으로 민선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의지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창군은 이번 평가 항목 중 민원취약계층 및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반영 운영,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민원처리공무원과 민원인간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호평이 이어졌다.

고창군은 다문화나 외국인계절근로

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상황을 고려해 각종 민원서비스를 외국어로 작성해 배포했다. 지난해 7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8대)의 발급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고, 저녁 시간 및 휴일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어 민원실 근무자의 점심시간을 보장했고, 심덕섭 고창군수와 함께하는 민원공무원 간담회, 국민신문고 및 민원처리 분야 우수공무원 선정·표창 등 민원처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했다.

한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개 분야(5개 항목, 20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 위한 인턴 모집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기회가 정읍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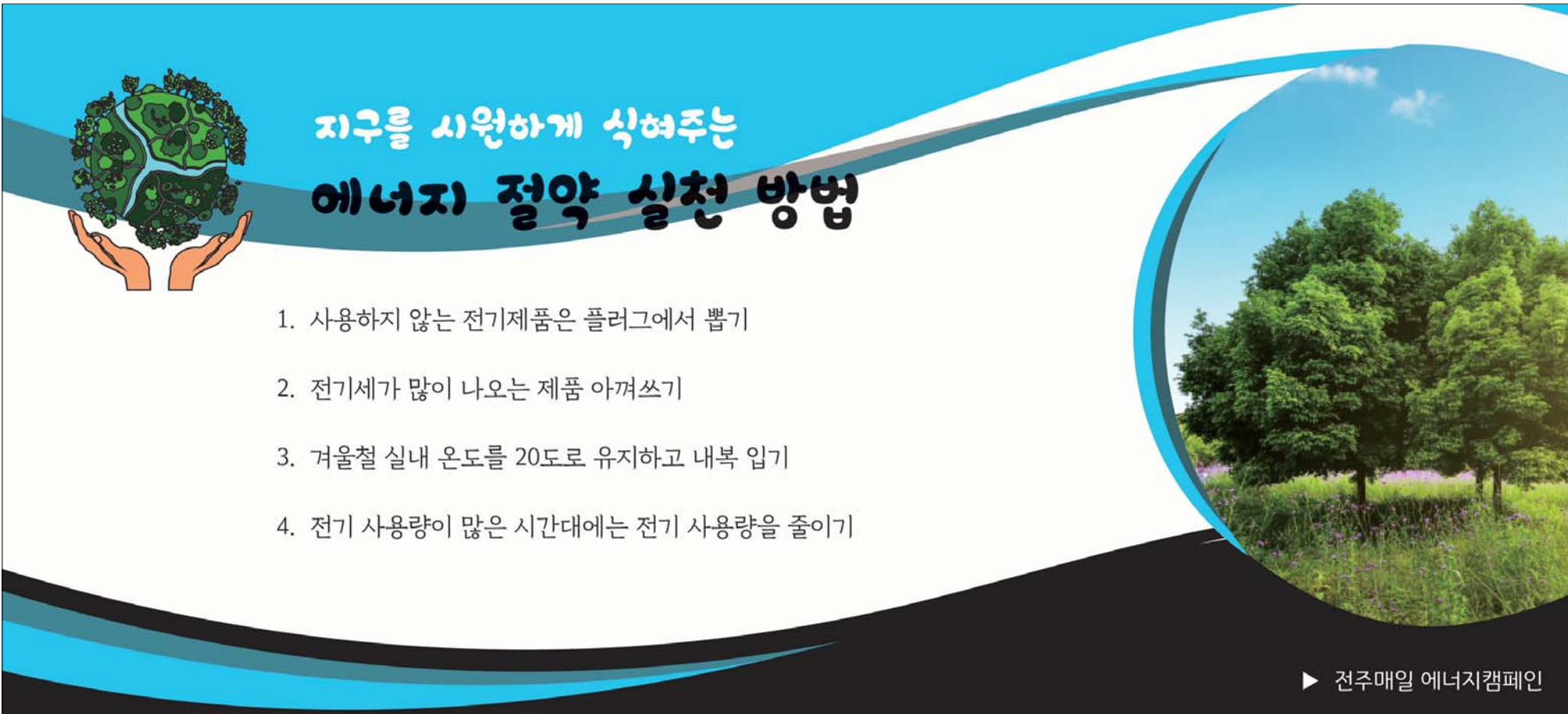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참여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 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체험과 직무 기술 습득의 기회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취업 후 안정적인 고용 유지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3개월 동안 매달 80만원씩 총 240만원의 채용지원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80만원, 12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로 8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돼 기업 입장에서 도 인력 채용에 부담을 덜 수 있다.

인턴 참여자에게도 혜택이 있다. 인턴 종료 후 6개월간 근무하면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돼 취업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